

‘이웃이 있는 마을’ 행복도시 구축 총력

광주 동구, 2020 신규·역점시책 보고회 개최

청년 창업가 임대료 지원사업 등 235건 심의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민선7기 구정 목표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신규·역점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임택 구청장을 비롯, 실·국별 간부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235건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분야별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기획·인문분야 12건 △문화·도시재생 분야 11건 △복지·경제 분야 28건 △도시관리 분야 14건 △자치행정 분야 17건 △보건의료 분야 11건 등 총 93건이며, 나머지 142건은 역점시책이다.

특히 동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사가 지원 방안,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 문화관광 브랜드 육성을 위한 청년

예술여행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주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용어로,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사람과 돈이 몰리고, 결과적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동구’ 원년 선포,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 조성,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 등 도시환경정비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축주와 업무 협약을 통한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 지역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테마별로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힌 ‘동구 인문순례길’ 조성안 등도 검토됐다.

동구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사업을 토대로 관련 부서별 세부 보완, 수정을 거



임택(가운데) 광주 동구청장이 '2020 신규·역점 시책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쳐 예산안 편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에 발족된 신규시책 중 자체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조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종

공모,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

“여성친화기업 인증 받으세요”

광주 서구, 여성근로자 비율 20%이상 업체 4곳 선정
현판 제공·홍보 대행...사위실 등 환경개선금도 지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0일까지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서구는 4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에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고 기업 홍보, 여성휴게실 및 우수실 조성, 사위실 설치 등을 위한 기업 환경개선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서구 소재 기업 가운데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로 여성근로자가 20%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062-360-7645)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소규모 기업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북구, 특별교부세 39억 확보

의회동 신축·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등 현안사업 추진 탄력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북구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 지역 현안사업 3개와 재난안전사업 1개 등 총 4개 사업을 위해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현안 또는 재난·안전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북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지체돼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회복지비 국비 차등 보조율제 건의 등 국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 교부받은 사업비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6억 원 △본촌산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10억 원 △북구 의회동 신축 16억 원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7억 원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를 정비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촌산단단지 내 노후 도로와 인도를 정비해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주변 하수도를 정비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와 싱크홀 발생 등 재난·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안전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발로 뛰며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더 많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광주 광산구 ‘하반기 시민 제납 정리반’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제납 세금 정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일 자리도 창출하는 ‘2019년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제납 정리반’을 운영한다.

선발 절차를 거쳐 채용된 7명의 시민 제납 정리반은 오는 11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과 ‘전화 안내반’으로 편성돼, 광산구 공무원과 함께 소액 제납액 전화 납부 안내, 실태조사, 제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활동에 나선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액제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납자들에게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해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올 상반기 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제납 정리반을 3-5월 운영해 총 1천203대의 제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액제납자 납부 독려 안내 등으로 10억 여원의 제납액을 징수했다. /광산=주형탁 기자 htjoo@

광주 남구, 공중화장실·어린이공원 모니터링

여성서포터즈 합동...20일까지 안심벨 설치 여부 등 점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공중 화장실과 어린이 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남구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관내 어린이 공원 8곳과 근린공원 7곳, 제석산 등산로에 마련된 공중 화장실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구 여성친화 서포터즈 회원 40명이 함께한다.

남구는 이 기간 여성 화장실의 안심벨 작동 유무와 몰래 카메라 탐지, 화장실 문 잠금장치 상태 확인을 비롯해 어린이 공원 놀이 시설물 및 바닥 상태 등 안전 여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물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사항 등을 담당 부서에서 건의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오픈

지역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가 광주 북구에 설립됐다.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16일 치매안심센터(사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보건소에 임시로 설치·운영돼왔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천300㎡ 규모로 동림동에 소재한 북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리모델링해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커피·가족카페 등 전에 없던 시설을 갖췄다.



북구 보건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두암보건지소를 권역별 센터로 운영해 보다 가까이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동림동 옛 농산물직거래장터 리모델링
검진실·상담실·가족 카페·쉼터 등 갖춰

주요 업무로는 지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조호 물품·배회 인식표 제공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센터장을 포함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5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북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아시아에너지경제

새롭게 도약하는
아시아에너지경제가
능력있는 지역 사·군 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10-9192-8048
팩스 : (062)227-0084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전화문의:062)227-0000 / 010-9556-0000(직통)